

[헌금계좌 : 신한은행 301-01-916707 안동교회]

\* 보내는분은 필히 성명+헌금종류를 표기해주세요

예) 홍길동주정, 홍길동감사, 홍길동십일조, 홍길동해외선교...

<십일조헌금>

김영석 김정단 김종훈 김주현 김현정 김휴숙 방승주 백종관 우순형 이규일  
이효종 임동희 임종규 장은라 정우영 조명자 조정귀 차은미 최다성 최문수  
최재왕 최종걸 한미진

<주정헌금>

강석인 고명수 김경아 김길성 김나영 김대영 김민수 김연신 김영실 김영희B  
김유선B 김재준 김정단 김정호 김종만 김중순 김한숙 김해숙 김혜자B 김화자  
노기방 노찬희 노하윤 문은희 민동호 박성준 방민 방승주 손선경 손우정  
송홍식 양은선 원광자 원명자 유양재 유왕재 유준자 유창선 유혜정 유화명  
윤혜원 이광섭 이석준 이선자 이성 이연화 이영수 이영은 이정숙  
임동희 임현우 전병권 전봉순 정옥자 정주원A 정학재 제갈희선 조민숙 조영희  
조정애 차은미 최경일 최예순 최용진 최재왕 허동각 홍동근 황경선 황영태  
황욱희 황은영 황재금

<주일헌금>

김세운 김은주 김휴숙 박진영 방예은 안일현 우순형 유경희 유정희 이형섭  
최은진 최호정 무명8

<감사헌금>

김방자(특거노인반찬) 김휴숙(범사) 노민 모우진(건강,사업번창) 원광자 유승연  
유정곤(온가족예배) 유호연 윤혜원(소허당전시) 이광호 이소이(새벽예배) 이용우  
이진영 임동희 임채호 장문자 정종화 조영희(건강회복) 최영란 허재우 무명3

<기금>

(장학) 고송희 박상현B (사회봉사) 김주현

<목적헌금>

(수요찬양예배간식) 송홍식 (한길선교회) 송홍식

<선교헌금>

(북방) 김정단 김희진 (해외) 김경호 김영실 김정단 이규일 이효종

\*3월 안동교회 중보기도

- 3월에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내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새롭게 말씀하소서.
- 피택된 향촌직분자들이 훈련 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되고, 섬김의 마음과 영적 은사를 더해 주셔서, 앞으로 맡게 될 귀한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 교회가 세상 앞에 화해와 평화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아픔을 딛고 일어난 공동체의 신앙과 삶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 예 배 시 간 안 내 ✠

예 배	시 간	장 소	담당교역자	
주일예배	영아유치부	오전 11시	영아유치부실	김은주
	아동부	오전 11시	아동부실	최다성
	중고등부	오전 11시	중고등부실	장희찬
	1부	오전 9시	예배당	황영태
	2부	오전 11시	예배당	황영태
	3부(청년)	오후 1시 30분	예배당	김태진
수요기도회	오후 7시	예배당	황영태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시 30분	예배당	황영태	

원로목사	유경재	2부찬양대지휘	김성미
담임목사	황영태	1부오르가니스트	민동림
부목사	김경아 마명규	2부오르가니스트	김연주
파송선교사	엘지자르갈(몽골)	간사	임동희
협력선교사	이영철 오영환	관리	김기복
전도사	김태진	어린이집원장	김은주
교육전도사	김은주 장희찬 최다성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막15:38)



2 부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동교회**  
ANDONG PRESBYTERIAN CHURCH  
안동교회 1909년 3월 첫주일창립

제4034호  
2026. 3. 29.  
종려/고난주일

2026년도 주제 :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 II  
창조세계 보전의 해

“찢어진 휘장, 열린 품”

마가복음 15:37-39

우리는 겉으로는 번듯하게 살아가지만, 내면 깊은 곳에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두려움을 안고 영적인 '고아'처럼 살아갑니다. 이 깊은 단절감과 외로움은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면서 생긴 '죄의 담장(휘장)'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이 두꺼운 성소의 휘장은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으로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철벽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견고한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직접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피가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원수 됨의 담장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밖에서 서성이는 고아가 아닙니다. 찢어진 휘장 사이로 담대히 달려가, 하나님의 무릎에 안길 수 있는 '자녀(양자 됨)'의 특권을 얻었습니다. 십자가가 열어 놓은 화해의 문을 통과하여 아버지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십시오.

- 소그룹 나눔 질문
1. [고아 영성] 내 삶 속에서 '고아'처럼 행동할 때는 언제입니까? (예: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할 때, 거절당할까 봐 사람들과 미리 벽을 칠 때, 내 능력을 끊임없이 증명하려 할 때 등)
  2. [복음 적용]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사실이 나의 기도 생활이나 인간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번 주간, '고아'가 아닌 '자녀'로서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할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서울시 종로구 윤보선길 57 (안국동)  
57, Yunboseon-gil, Jongno-gu, Seoul, Korea  
TEL. (02) 733-3395 FAX. (02) 733-3398  
E-mail. office@andong-ch.org http://www.andong-ch.org

